

철도요금 할인받고 익산 기차여행 간다

코레일 '다시 있는 대한민국, 지역사랑 철도여행' 상품 통해 지정열차 예매 시 50% 할인 '9경3락 익산기차여행' · '렌터카타고 떠나는 익산 고백여행' 은 추가로 다양한 혜택 제공

익산시가 기차로 익산을 방문하는 여행객을 위해 다양한 할인과 혜택을 준비했다.

익산시는 코레일의 '다시 있는 대한민국, 지역사랑 철도여행' 상품을 통해 익산 지정 열차를 예매하면 열차 운임을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자유여행과 패키지여행이 있으며, 예약은 렛츠 코레일 누리집(letskorail.com) 또는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 가능하다.

자유여행 상품은 열차를 10% 할인된 가격으로 예매할 수 있으며, 지정 관광지 중 한 곳에서 QR코드를 인증하면 다음달 추가로 40% 할인 쿠폰을 지급받는다. 지정 관광지는 미륵사지, 백제왕궁박물관, 보석박물관, 교도소세트장, 아가페점원이다.

패키지여행 상품은 '9경3락 익산기차여행'과 '렌터카타고 떠나는 익산 고백(GoBack) 여행'이 있으며 별도 인증 없이 즉시 50% 할인된 열차 왕복권과 다양한 추가 구성을 즐길 수 있다.

먼저 '9경3락 익산기차여행'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와 협업해 출시한 상품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50% 할인된 열차 왕복 승차권과 순환형 시티투어버스 1일권, 계화림 20% 할인을 비롯해 중앙시장 상상노리터 등 식당 5개소와 여행자키퍼 '이리로, 여행자 힘'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쿠폰을 제공한다.

또한 백제문화체험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쿠폰도 증정해 무료로 백제 의상 대여와 마룡네트 촬영이 가능하



다. 8월 30일까지 나폴레옹 유물전시관을 방문하면 익산의 귀여운 캐릭터 마룡굿즈까지 받을 수 있다.

'렌터카타고 떠나는 익산 고백(GoBack) 여행'은 열차 왕복 승차권을 50% 할인받고 24시간 동안 할인된 가격에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다. 익산 관광지 두 곳과 식당 한 곳을 이용한 후 방문사진과 영수증을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익산시는 '다시 있는 대한민국, 지역사랑 철도여행' 상품뿐만 아니라 익산역을 혜택역으로 지정하고 방문하는 기차여행객 '내일러'에게도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렌터카 1대당 33,000원(최대 4일), 숙박 시 1인당 22,000원(최대 3일)을

지원하며 시티투어 1일 탑승권까지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권 여행센터(063-855-771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익산시는 1박 2일 동안 지역 곳곳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9경3락 익산여행'의 8월 마지막주 금요일 투어를 접수받고 있다.

첫째날 원불교총부에서 명상체험을 시작으로 사진명소로 유명한 아가페정원, 5천여 개의 향아리로 장관을 이루는 고스라ک 등을 방문한다. 숙박은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불명과 함께 하는 촌강스를 체험해 볼 수 있고 둘째날은 미륵사지와 골목투어 등 흥미로운 관광으로 채워져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돌봄분야 인구정책 전략회의 개최

'키움옴 가족행복도시' 조성 위해 신규사업 발굴 논의 등

군산시는 신원식 부시장 주재로 지난 16일 인구정책 돌봄 분야 관련 사업 부서장들과 인구정책 전략회의를 열어 신규사업 발굴을 위해 논의했다.

올해 '키움옴 가족행복도시' 조성에 집중하고 있는 군산시는 전략회의에 앞서 인구정책의 돌봄, 교육, 주택 분야 관련 실무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세 차례 릴레이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전략회의는 릴레이 회의에서 나온 성과가 좋은 사업의 확대 검토 제안 및 신규 정책 아이디어를 의제 과제로 삼았으며,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의견 개진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지원해 가사 및 양육 부담 경감을 돕는 군산형 가사서비스 △출생아 가정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상향 지원 △출생아 처음 시행해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던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확대 지원 △최근 교육부가 선정한 교육발전특구 사업 중 틈새돌봄 관련 정책들이 심도있게 검토됐다.

신원식 부시장은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불편이 없는, 양육을 하는 동안 모두가 행복한 환경과 시스템 조성을 위해 전 부서가 힘써주길 바란다"면서 "전략회의를 통해 논의된 사업은 지역 현실에 맞게 다듬어 내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진행"을 당부하였다. /군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폭염에 농업인 피해 최소화 '총력'

시 농기센터, 현장 중심 폭염 예방 활동 강화

익산시가 폭염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강도 높은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집중 운영에 나서고 있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과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장 중심 폭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먼저 폭염 경보 발령 시 농업인에게 폭염 대응 행동요령이 담긴 안전문자를 발송하고 낮시간 농작업 자제, 나홀로 작업금지, 물 자주 마시기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농업인이 행동요령을 숙지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읍·면·동 상담소를 통해 마을단위 순찰과 농가 현장 방문을 진행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찾아가는 영농현장 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시기별 작물의 생육상황과 병해충을 예방하고 농가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현장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농가 스스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실천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농촌지도자 등 농업 관련 단체 간담회 시 폭염 대비 행동요령과 농작물 관리 방법을 교육하고 지역 농업인에게 전파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농기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마다 온열질환 예방 관리 영상, 리플릿 배부 등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1000만원 미만 지방세 체납자 징수

체납자 전수조사 후 '증권계좌' 압류·추심

군산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하반기에도 1,000만원 미만 체납자를 대상으로 '증권계좌' 압류 및 추심을 강력시행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미 군산시는 올해 상반기에도 1,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증권계좌를 일괄 압류한 바 있다.

그간 1,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경우 증권금융기관 본점에서 일괄 계좌조회가 가능했다. 반면, 1,000만원 미만 체납자는 증권사 지점까지 특정하여 계좌를 밝혀야하는 어려움 때문에 사실상 증권계좌 보유 파악이 어려웠다. 하지만 2021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군산시는 1천만원 미만 체납자의 증권계좌 보유현황이 증권 명의서 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에 모인다는 사실에 착안, 대행기관에 직접 조회하여 계좌 보유 여부를 파악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1,000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번 압류대상자는 2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체납자 764명으로 시는 전수조사해 추징거래가 있는 모든 계좌를 압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달에 증권 명

의개서 대행기관에 의뢰하여 체납자의 주식 수, 증권사 등을 요청·회신받아 9월경 예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예고문 발송 후에는 본격적으로 10월부터 증권계좌 압류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민납세와 서준석 과장은 "군산시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금액에 관계없이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것"이라며 "조세정의 실현은 물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다음달까지 반부패 집중기간 운영

익산시가 하반기 하계휴가철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의 준수를 당부하는 '청렴경보'를 발령했다.

청렴경보 주요 내용은 △명절 기간 명목 선물 수수 주의 △하계휴가철 읍·면·동 절대 금지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휴가철, 추석명절 분위기 편승 근무태만 주의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등이다.

'청렴경보'는 익산시가 2024년 첫 시

행한 반부패·청렴 정책이다.

익산시는 다음달까지를 반부패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맞춤형 청렴 교육 △간부공무원 갑질 근절 교육 △민·관 청렴거버넌스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병행한다.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추석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 이행 실태,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 기강해이에 관해 점검할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시 수도사업소,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등급

군산시 수도사업소(소장 강익식)가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하수도분야'에서 우수등급인 '나' 등급을 받았다.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와 경영진단을 통한 경영혁신 및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전국 26개 지방공기업(공사·공단 158개, 광역·기초하수도 104개 기관)을 대상으로 경영관리, 경영성과 등 2개 분야 18개 세부 지표를 2년마다 평가해 최우수 '가' 등급에서 '최하위' '마' 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시는 △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하수관로 개량 등을 위한 계획 수립·추진 △상수 침수구역 연속형 빗물받이 설치 △각종 상황별 재해·재난 대비 모의 훈련 다수 실시 등 경영리더십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2022년도 경영평가 '나' 등급보다 한 단계 상승한 '나' 등급으로 끌어올렸다.

/군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전기차 충전소 지상 이전 지원 인센티브 검토

군산시는 이르면 2025년부터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의 지상 이전 지원 및 지하 충전소 화재 안전시설 설치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최근 인천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등으로 주민 불안 및 갈등이 불거짐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 지상 이전과 지상 이전이 불가능한 지하 전기차 충전소에는 화재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관리 현황 및 화재 안전시설 구비 여부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지상 이전 수요를 이달 30일까지 사전 조사한다.

현행 규정상 전기차 충전소를 신규 설치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지상 설치를 강제할 수 없어 내달 발표될 법무부 전기차 화재 예방 대책에 맞춰 지상 설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군산=이재훈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